

전주시, 수소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올해 상림동·송천동·전미동에 수소충전소 3개소 추가 구축 추진... 총 7개소 확보 예정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차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충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수소충전소에 이어 올해 수소충전소 3개소를 추가 구축해 수소에너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천동과 삼천동, 평화동, 색장동에

총 4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

여기에 올해는 상림 수소충전소와 송천 액화수소충전소, 전미 액화수소충전소 등 총 3개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설치되는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 기체수소충전소와 비교해 설비용량이 큰 데다, 빠른 충전도 가능해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역 수소충전소가 7곳으로 늘어나면, 수소연료 1일 공급량이 기존 2150kg에서 6400kg으로 약 3배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에 수소승용차 기준 약 1200대, 수소버스 기준 약 3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수소승용차 211대와 수소버스 119대 등 총 330대의 수소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국방문 상품 전문 여행사 10개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주시, 야간관광 미국에 알린다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한국방문상품 전문 여행사 초청 팸투어 5월부터 재외동포·미국 현지 MZ세대 대상 야간관광 패키지 개시

전주시가 재외동포 등 미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국 방문상품 전문 여행사 10개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에어프림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팸투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 및 한류를 선호하는 미국 현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도출 회의 △호텔 및 식당 그리고 체험의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해 코스를 확정 짓는 스타터투어의 개념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참여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될 △팔복예술공장(Club The 8) △풍패지관(야간연회) △한국전통문화전당(한여름 가뭄마당) 등을 방문해 야간관광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렸다.

또한 △국제요리학원(한정식 만들기

체험) △삼장정미소(한옥마을~바람 쐬는 길 구간 자전거 여행) 등 외국인 이 선호하는 체험·미식 여행 일정을 경험하면서, 여행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의 시간도 가졌다.

시는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현지 여행사들과 함께 오는 5월부터 재외동포 및 미국 현지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전주 야간관광 패키지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직접 미국을 찾아 이번 방문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한류와 야간관광을 결합하고, 상품개발 과정에 현지여행사가 직접 참여하는 팸투어"라며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서 야간 관광 특화상품 여행 코스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서 민생현장 행정 펼쳐

현장 애로사항 청취·개선방안 논의·노후시설물 연차적 유지 보수 계획 수립 등 대응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9일 '2024년 제12차 민생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전북 농수산물 유통의 요충지인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주요 시설물의 안전대책과 장비구비 물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우 시장은 먼저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주요 4개 입주법인 대표와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지난 1993년 개장한 후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차적인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 시장은 지난 2022년 압모니아 냉동제조시설의 배관 및 벨브 노후화로 냉동창고 압모니아 냉매 누출이 발생한 수산물 현장을 찾아 개선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도매시장이 중대시민재해



연일 민생현장을 찾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청과물·수산 도매시장을 찾아 나섰다.

대상 시설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우 시장은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비자물가 안정과 전통 시장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완산구, 폐수배출시설·하천 지류 수질오염 예찰활동 강화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오는 5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세차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주요하천 수질오염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감시활동을 격주 1회 실시하여 관내 주요 하천인 삼천천과 전주천을

중심으로 △하천 상류 농수로 수질오염 행위 △하천 내 생활하수 및 수질오염물질 유입 여부 등 주요 감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인 배출시설 사업장은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하여 사업장별로 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 하였고,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인·허가 신고 적정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도 검사) 등이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계획이

며, 수질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기준 초과 항목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이번 폐수배출시설 점검으로 오염된 산업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요 하천 지류의 생활하수 유입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완산구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길에 누운 노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검찰 송치

길가에 누워 있는 70대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40대)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월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아파트 입구에 누워 있던 B(70)씨를 차로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B씨를 친 후 고의로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곧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